

독일, DB InfraGO €190억 투자로 철도 인프라 현대화 및 Stuttgart 21 미래형 역사 구축

해당국가	독일	기관(기업)	DB InfraGO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철도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독일 철도 인프라는 노후 시설의 구조적 갱신과 역사 현대화를 병행하는 대규모 투자 확대를 통해 네트워크 신뢰성과 운행 안정성을 강화하는 전략 추진

- DB InfraGO는 2025년 전국 약 26,000개 공사 현장에서 €190억(약 27조 5,500억 원) 이상을 투자하여 선로·신호설비·역사 현대화를 포함한 대규모 철도 인프라 갱신 추진
 - 전국 5,700개 역사 중 950개소 현대화 완료, 플랫폼·역사 건물·주변 공공 공간을 통합 정비하는 일체형 개발 방식을 100개소 이상 적용
 - 2025년 한 해 동안 분기기 2,065개 교체, 선로 2,173km 신설·갱신, 가공전선 288km 교체를 완료하며 노후 철도 시설 현대화 추진
- 함부르크-베를린 코리도 전면 갱신, 드레스덴-안할트 철도 개통, 2021년 홍수로 훼손된 아르 계곡 철도 재개통 등 대형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 완료
 - 함부르크-베를린 구간에서 180km 이상 선로와 200개 이상 분기기를 갱신하고, 6개 추가 선로 전환 시설을 설치하여 운행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
 - 레멘-부르크 및 뮌헨-뮐도르프 구간에 전자식 연동장치(Electronic Interlocking) 도입 및 라이프치히/할레-베를린 노선에서 ETCS 기반 고속 운행 신호 설비 구축

□ Stuttgart 21 미래형 지하 역사 완공을 앞두고 스마트 역사 운영 기술 도입을 본격화하며 역사를 단순 교통 시설을 넘어 도시 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기술 혁신을 추진

- Stuttgart 21 프로젝트는 2025년 슬래브 트랙 및 철도 설비 공사가 진전되고 고속 운행을 위한 첫 시험 운행을 완료하며, 2026년 12월 역사 개통을 목표로 최종 단계에 진입
 - 미래형 지하 관통 역사의 핵심인 '라이트 아이' 채광 구조물과 격자 쉘 형태의 역사 홀 출입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완공 시 독일 역사 설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
 - 기존 지상 두단식 역을 지하 관통식으로 전환하는 구조 혁신을 통해 도심 철도 용지 반환과 역사 중심 복합 개발을 동시에 실현하는 미래형 역사 모델로 주목
- DB InfraGO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과 베를린 중앙역 등 주요 거점에서 30개 이상 용량·신뢰성 개선 프로젝트 완료
 - 2025년 11월 기준 신호소 인력 충족률 99.0% 달성, 건설 감리·선로 유지보수 분야 포함 신규 직원 약 8,000명을 충원하여 운영 역량을 강화
 - 2026년에는 약 28,000개 공사 현장 운영과 €230억(약 33조 3,500억 원) 규모 투자로 철도 현대화 가속 계획

※ 출처 : Railway-News(2025.12.29.), 2025: DB InfraGO Invests Over €19 Billion in Rail Infrastructure